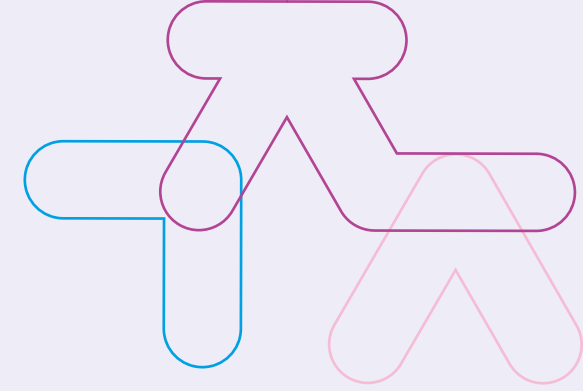


심사평



21세기는 새로운 세대들의 시대입니다

- 제2회 김진재SF어워드 수상작품집에 부쳐

처음 김진재SF어워드를 만들 때, 성인부 응모 자격을 27세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에 내심 가웃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전까지 신인 SF작가를 뽑는 공모전들에서 전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첫 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데 이어 이제 두 번째까지 끝내고 나니 참으로 절묘한 결정이었다는 생각이 굳어집니다.

기성세대들은 미래SF에서나 보던 연도라서 잘 실감이 나지 않는 2020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는 21세기 세대들에게는 그야말로 아재들의 옛날 타령일 뿐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라떼는 말이야~'인 거죠. 2020년은 옛 세대의 '오래된 미래'가 아니라 신세대들이 생생하게 매일매일을 지내는, 살아있는 현재입니다. 김진재SF어워드는 바로 그러한 신세대들이 그리는 미래 전망을 기대합니다.

수학계의 필즈상(Field's Medal), 그리고 경제학계의 존 베이츠 클라크상(John Bates Clark Medal)은 모두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상입니다. 각 분야에서는 노벨상이나 다름없는 영예이며, 실제로 클라크상의 경우 수상자의 상당수는 나중에 노벨경제학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상의 공통점은 40세 미만인 젊은 학자에게만 수상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 26세에 상대성이론을 발표한 것처럼, 뛰어난 창의성은 젊은 사람들에게서 돋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기성의 때가 묻지 않은 채 자유분방한 상상력을 한껏 펼칠 수 있는 것이겠지요. 아직 두 번밖에 치르지 않았지만, 김진재SF어워드의 응모작들은 보면 확실히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특별히 흠잡을 데는 없으나 딱히 독창적이지도 않은 작품들보다는, 좀 거칠더라도 통통 튀는 상상력이 담긴 습작들이 많이 눈에 띄입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즐거운 고민을 거듭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요즘 화제가 된 젊은이가 있습니다. 스웨덴의 소녀 그레타 툰베리입니다. 2003년생인 그는 기후변화에 대한 기성세대들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 동맹 휴학을 주도하는 청소년기후행동을 이끌고 있습니다. '타임' 지에서 '2019년 올해의 인물'로 선정하기도 했지요. 툰베리는 활동 과정에서 몇 가지 구설이 나오기도 했지만,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에 트집을 잡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툰베리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20세기는 성찰이 없는 과

학기술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기후변화부터 환경오염, 핵폐기물, 생태계 파괴, 과학윤리 등등 온갖 골치덩이들이 21세기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21세기 세대들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오랜 기간 애를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세먼지나 미세플라스틱만 해도 이미 일상적으로 우리의 생활환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기적 과학기술은 세기적 윤리 문제와 쌍둥이로 태어납니다. 21세기는 성찰이 있는 과학기술의 시대여야 합니다. 튜베리를 비롯한 21세기 세대들은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이들이 내놓는 SF스토리텔링에는 바로 그런 성찰이 배어 있습니다. 21세기 세대는 급격한 과학기술의 변화라는 환경을 태어날 때부터 마치 숨 쉬는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적응하며 성장한 인류 역사상 첫 세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들은 과학기술의 긍정적인 면들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효과들까지도 잘 체감하고 있습니다. 기성세대들은 21세기 세대를 과소평가할 게 아니라 이들이 내놓는 새로운 세계관이나 철학에 적극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김진재SF어워드야말로 바로 그런 목소리들을 낼 수 있는 훌륭한 창구입니다. 이 책자에 실린 작품들의 주제를 경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젊은이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선보이리라 믿습니다. 21세기는 신세대들의 시대입니다.

심사위원 박상준

SF 및 교양과학 전문 기획번역가, 칼럼니스트, 강연자
 <SF 거장과 결작의 연대기>(공저), <화씨451>(번역) 등 저서 발간
 SF전문출판 '오멜라스' 대표, 장르문학 전문지 '판타스틱'의 초대 편집장 역임
 (현) 한국SF협회 회장
 (현) 서울SF아카이브 대표

2020년 새로운 우주와 낯선 지구

다소 엉뚱한 질문을 해보자. 가장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누구이며, 가장 책을 많이 보관하는 곳은 어디며, 그리고 누가 그렇게 많은 책을 만드는가? 독자(소비자), 소통(중개자), 작가(생산자)로 간추리면, 아마도 먼저 대학교수와 도서관 그리고 인기 작가를 떠올릴 것이다. 얼핏 맞는 것 같지만, 지식의 전문성, 장소의 공공성과 대중의 상업성이라는 관계를 빼버린다면, 그렇지 않다. 한마디로 이러한 외형은 중요하지 않다. 해서 여기서 관점을 달리하고 싶은 것은 글자를 읽고 이해할 줄 알면서부터 시작하는 읽기의 단계와 유형, 개인적인 독서의 유용성이다. 동시에 이러한 독서의 생산자는 누구인가, 또한 그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쓰는가? 라는 물음도 독자로서는 피할 수 없기에 ...

'수용미학'의 저자 볼프강 이저의 글을 빌리면, 독자의 층위와 잠재적 수준은 반드시 독서의 양이나 효용성에 의해 가능될 수 없다. 그리고 독자는 왜, 무엇 때문에 책을 읽는가? 역설적으로 늘 독서 나아가 문화의 소비자나 이용자로만 남을 것인가, 남고 싶은가? 그렇지 않다. 읽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작가나 지식을 생산하는 자가 될 수 없듯이, 독서의 잠재력은 바로 소통과 문화의 생산성에 맞닿아 있다. 인터넷과 함께 이젠 스마트 시대로 접어들면서, 정보나 문화의 상호소통과 동시성이 확보되었다. 이젠 누구나 문화의 소비자이자 생산자 그리고 유통자가 될 수 있다.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이러한 세가지 역할이 함께 뒤섞이는 자신만의 창조적 행위는 무엇으로 이해되기보다는 어떻게 정의되는가에 따라 가치를 달리한다.